

중국경제 현안 브리핑

03-60호 / 12월 5일

중국내 외자은행 진출현황과 전망

1. 개요

- 2001년 12월 중국의 WTO 가입 이후 외자 금융기관에 대한 개방이 본격화 되었음.
 - WTO 가입과 동시에 외자금융기관의 외환업무 서비스대상에 대한 제한이 철폐되었고, 上海, 深圳, 天津, 大連에서는 외자금융기관이 위안화업무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었음.
 - 2002년 3월 미국 시티뱅크는 중국내에서 중국인을 대상으로 외환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가받았고, HSBC는 상하이은행에 지분 참여하여 중국시장에 본격 진출하였음.
 - 2003년 12월 1일부터는 중국기업을 고객으로 한 외자은행의 위안화업무 제한을 완전 철폐하였으며, 2006년까지는 국내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한 위안화업무도 완전히 개방할 예정임.
- 최근 외국금융기관의 중국진출이 가속화됨에 따라 중국 금융시스템내에서 외자금융기관이 차지하는 위치가 날로 중요해지고 있음.

2. 외자은행의 진출 현황과 특징

□ 2003년 7월 말 현재 중국내 외자은행의 영업성 기구는 184개, 외자은행의 지점은 151개, 외자법인가구는 16개, 대표사무소는 211개임.

- 중국내 외자은행의 자산총액은 379억 달러, 그 중 위안화자산총액은 495억 위안임.

□ 외자은행 진출의 지역별 현황과 특징은 다음과 같음.

- 첫째, 외자 금융기구의 진출이 가장 활발한 지역은 상해임.
 - o 2003년 7월 말까지 상해시 57개 영업성 외자은행 중 외환업무 뿐만 아니라 위안화업무 허가를 받은 외자은행이 이미 34개에 달함.
 - o 상해시의 영업성 외자은행은 전국의 외자 영업성기구 총수의 30%를 차지하고, 자산총액(226억 달러), 예금잔액(97억 달러), 대출잔액(55억 달러) 모두 전국 외자은행 업무총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.
- 둘째, 심천은 상해에 이어 두 번째로 외자은행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지역임.
 - o 심천은 가장 먼저 개방한 도시로, 외자은행의 자산규모와 대출총액이 전국 2위를 차지함.
 - o 심천 외자은행의 자산총액은 56억 달러, 대출잔액은 23억 달러이며, 외자금융기구의 자산총액은 전국에서 20%를 차지함.
- 셋째, 북경지역은 아직 상대적으로 개방이 덜 되어 있으나, 현재 외자은행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지역임.
 - o HSBC는 2002년 3월 외자은행으로서는 최초로 북경에서 중국인과 중국기업에 대한 외환관련 서비스제공 업무를 인가받았음.
 - o 대화(大華)은행을 포함하여 이미 19개 외자은행이 북경에 지점을 개설하였고, 이외에도 많은 외자은행들이 지점 개설을 준비하고 있음.

- 넷째, WTO 가입 이후 광둥성에서 외자은행 진출이 가속화되고 있음.
- o 동아은행(東亞銀行)과 HSBC가 2003년 광주에서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한 외환 업무 허가를 받았고, 항생은행(恒生銀行)과 삼정주우은행(三井住友銀行)이 위안화 업무를 허가 받았음.
- 이외에도 천진, 대련, 厦門 등에서 외자은행의 진출이 빨라지고 있음.
- o 천진의 경우 일본 일연은행(日聯銀行), 한국외환은행, 한국조흥은행, 한국기업은행 등이 위안화업무 허가를 받았음.
- o 대련시는 주로 일본계은행과 한국계은행의 진출이 활발함.
- o 厦門에서는 동아은행 등 3개 외자은행이 중국인과 중국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외환업무를 인가받았음.

3. 외자은행의 진출 방식과 업무 내용

□ 현재 외자은행의 중국진출은 주로 다음과 같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.

- 첫째, 중국내 지점을 개설하는 방식
 - o 현재 중국내에서 가장 많은 지점을 개설한 은행은 HSBC(9개)와 Standard Chatered Bank(7개)이고, 이어서 홍콩을 기지로 하는 동아은행과 남해(南海) 상업은행의 순임.
 - o 금후 수년간 외자은행은 중국내에서 더욱 많은 은행지점을 설립하여 서비스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할 것으로 보임.
- 둘째, 중국 국내은행과 합자하여 새로운 합자은행을 설립하는 방식
 - o 이는 보통 주식제상업은행으로 일컬어지는데, 외자은행의 입장에서는 지점 설립보다 작은 규모의 자금으로 중국에 진출할 수 있어, 금후 외자은행의 중국 진출의 주된 방식이 될 전망이다.
 - o 현재 상해의 경우 외국 금융기관의 지분참여 비중은 이미 18%에 달하고 있음.

- 셋째, 중국 국내은행기구의 주식을 인수하여 진출하는 방식.
- o 장차 중국 국내은행의 주식개방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어서 이러한 형태의 외자은행 진출은 앞으로 현저히 늘어날 전망이다.
- o 현재 4대 국유독자 상업은행은 재산권 개혁의 일환으로 주식제 개편을 추진중 인바, 이 경우 외자은행의 참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.
- 넷째, 외자은행이 독자은행을 설립하는 방식이 있으나, 현재 이러한 형태의 진출은 구비조건이 상당히 까다로운 편임.
- 다섯째, 중국 은행기구와의 업무 협력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진출하는 방식

□ 현재 중국내 외자은행의 업무범위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어, 각 진출은행은 중국내에서 사업기회 활용에 주력하고 있음.

- 첫째, 외환업무에 대한 제한은 WTO 가입 이후 전면적으로 철폐되어 이미 60여 개 외자은행이 외환업무를 허가받았음.
- o 시티뱅크, HSBC 등은 특히 고액거래자를 타겟으로 재무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차별화를 준비하고 있음.
- 둘째, 위안화업무는 53개 은행이 인가를 받았음.
- o 원래 외자은행의 위안화업무는 주고객이 외자기업으로 제한되었으나, 2003년 12월 1일부터는 중국기업을 포함한 전체기업을 대상으로, 또한 2006년 12월까지의 중국인을 포함한 모든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한 위안화업무가 허용됨.
- 셋째, 은행카드 업무는 조만간 “은행카드관리조례”가 실시되면 정식으로 외자은행의 진출을 허용할 전망이다.
- o 현재 거의 모든 외자은행이 국제카드업무 신청을 제출하였는데, 특히 시티뱅크는 상해포동(浦東)발전은행의 지분 5%를 인수하면서 금후 신용카드시장에 주력할 것이라고 선포하였고, HSBC도 신용카드 발행을 준비하고 있음.
- o WTO 가입 이후 5년이 되는 2006년에는 외자은행의 위안화카드 발급도 허용

할 예정임.

- 넷째, 온라인은행 업무는 HSBC, 항셍은행, 동아은행 등이 주도적으로 네트워크 구축에 나서고 있음.
- o 시티뱅크도 올해 7월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은행업무에 본격 진출하였음.
- 다섯째, 시티뱅크, HSBC, Standard Chartered Bank, Deutch Bank, 싱가포르발전은행 등은 QFII 위탁관리 업무를 인가받았음.

4. 향후 전망

- ☐ 중국의 금융시장 개방이 가속화되면서 외자은행의 중국 진출 역시 더욱 빠르게 확대될 전망이다, 이는 중국 금융기관에게 위협과 동시에 빠른 발전기회를 제공할 것임.
- WTO 가입 약정에 따라 위안화업무 개방이 확대되더라도 국내 은행의 주도적인 위치는 상당기간 유지되겠지만, 외자은행의 시장점유율이 점차 높아지고 이와 함께 국내은행과 외자은행간 경쟁도 치열해질 것임.
- 향후 외자계 금융기관들은 중국진출 과정에서 중국 국내 은행 및 금융기관과의 상생적인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중국의 경제체제 및 금융체제 개선 및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음.(***)